

금태섭 “서울시장 출마 깊이 고민...국민의힘 입당은 아냐”

국민의힘 강연서 민주당에 독설·야당에 조언

“지금 민주당은 진보 아냐...대통령도 무책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여당과) 싸우려면 선거를 이겨야 한다. ‘발목 잡는 야당’으로 물리면 여당이 할 일을 제대로 못하는데 알리바이만 만들어줄 수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명불허전 보수다’ 강연자로 나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안에 대한 야당 대처를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수처가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지루한 다툼을 벌이는 것은 당연히 반대하는 쪽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소위 프레임에 걸리는 것”이라며 “선거에 이겨서 정책을 선택할 수 있을 때는 당연히 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땐

쓴 약을 삼키는 마음으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선거에서 일단 한 쪽을 선택하면 거기서 국정을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한다.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면 야당을 바라본다”며 “그런데 야당이 진 선거 때 하던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으면 다시 유권자는 차악을 선택하는 마음으로 여당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금 전 의원은 “광주 민주화항쟁에 대해 사과를 하고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유연한 대응을 하는 것은 정말 훌륭하다. 그러나 조금 더 해야 한다”며 “인물이든, 정책이든 혹은 구호든 기존의 관행을 상정하는 것을 찾아서 과감하게 자르고 희생해야 한다. 2016년 민주당이 이해찬, 정청래 없는 민주당이 되었던 것 이상으로 새로운

야당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최근 야권에서 제기되는 연대의 방식에 대해서는 ‘곱셈의 연대’를 제안했다. 금 전 의원은 “연대를 하려면 서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각자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각의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 선거를 앞두고 힘을 합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변화 없는 덧셈은 그마저 불가능하다”며 “결코 단순히 세를 불리거나 사람을 끌어들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함께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그는 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우기도 했다. 금 전 의원은 “지금 민주당은 독선과 오만, 고집과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탈당을 했지만 지금 고개를 들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매일 같이 총독들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데 여당은 해결에 나서지 않는데 한쪽 편을 들어 야단을치고, 대통령도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침묵만 지

킨다”며 “도대체 정치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이어 “이런 책임은 집권 세력 측에 있지만 대안 제시와 견제를 제대로 못하는 야당에도 책임의 일단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보-보수, 여-야 양측이 견제하면서 잘하지 못하면 다음에는 선택을 못 받는다는 두려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정치가 한 발짝씩 나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야권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깊이 고민하고 있다”며 “감당할 의미를 깊이 고민해 감당할 게 있으면 해야 할 것”이라며 “최종 결심은 아니지만 결심이 되면 말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내년 서울시장 선거는 임기가 1년이고 가장 정치적인 선거가 될 것”이라며 “집권여당이 독주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이번 선거에서 합리적 정치 복원을 위해서는 여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에서 강연하고 있다.

러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야권 연대를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합류할 생각이 없다는 질문에는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이 (대안을 만드는) 바람에 도움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 탈당해서 국민의힘에 가서 경선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좋아보이지 않을 것”이

라면서 “국민의힘에서 양보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 전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권의 대선 잠룡으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훌륭한 검사라 생각한다”면서도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는 시각을 내비쳤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희망 22'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유승민 “이명박·박근혜 잘못 사과 해야”

“탄핵의 강 안 건너면 국민 마음 못 얻어”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18일 김중민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과 관련해 사과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관련해 “열 번, 스무 번이라도 (사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여의도에 문을 연 자신의 사무실 '희망22'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잘못과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이명박 정

부의 잘못에 대해 국민이 요구한다면, 또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라면 사과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바른정당 창당 당시에도 무릎 꿇고 사죄를 했다. 저희들도 책임이 컸다”면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에게도 과거를 정리하지 않으면 국민 마음을 얻을 수 없다고 사과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김해공항 백지화’ TK 대 PK로 갈라지는 국민의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까지 밀어붙일 태세

지난 17일 오후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을 사실상 백지화하는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의 발표 이후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지역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며 파열음을 키우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가덕도 신공항 지지 기자회견을 했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까지 밀어붙일 태세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대구·경북과 부·울·경으로 나뉘어 지역 표심 잡기에 여념이 없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정부, 여당,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시장 차원의 특별법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태경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은 김해신공항 백지화 발표 직후 ‘가덕도신공항 추진에 적극 힘을 보탬 것이다’는 성명을 내고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결정을 한

영했다.

그는 “정략적인 주장이나 소모적인 상황을 지양하고, 부산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가덕도신공항의 추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가덕도신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 여당의 의지와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산시 진구갑이 지역구인 같은 당 서병수 의원에 페이스북에 “오늘은 김해신공항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했으니 내일은 가덕도 신공항 만든다고 선언하라”고 말했다.

이에 “신공항 정치의 마침표를 찍고, 부산의 미래를 향한 대통령의 결단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반면 대구시당위원장인 광산도 의원은 “국책사업이 부산시장 선거 때 문에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대구 수성구갑이 지역구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16일 의원총회에서 정부의 김해신공항안 폐기와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대해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득을 보려고 변경을 추진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해신공항 백지화가 월성 1호기와 판박이로 규정하며 감사원 감사 추진까지 시사했다.

국민의힘 소속 대구와 경북지역 24명의 의원들도 ‘김해 신공항 확장사업은 유지되어야 합니다’라는 공동성명에서 “국책사업이 갑자기 부산시장 보궐선거용으로 뒤바뀌어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을 재검토한다고 하니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해 신공항 추진에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총리실 발표는 작년에도 부울경 검증단에서 제시된 내용을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번 검증은 잘못된 것이 명백하다”고 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윤한홍 “5·18 특별법? 다른 의견 제시하면 처벌한다니 독재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5·18 특별법을 두고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자괴감이 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뤄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5·18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처벌하겠다는 게 주요지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역사적 사실은 평가자의 주관적 관점이나 시대정신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것이고, 평가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처벌하겠다는 법이 나왔는지 의문이 될 정도다.”라고 지적했다.

뉴시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